

1. 들어가는 말

최근 우리 사회에서 공동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선한 사회’(good society)에 대한 논의는 인문사회과학 영역에서 오래된 주제이다. 시대를 넘어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데 매우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특정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학문 영역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깊이 있게 이루어져왔다. 그리고 현재 코로나 사태 이후에 뉴노멀을 이야기 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표준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도 직결되는 주제이다. 코로나 사태를 기점으로 이전의 잘못된 관행과 관습을 과감하게 개혁하여 새로운 사회 질서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들이 나오는 상황에서 어떻게 공동선의 가치를 현실화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주지하듯이 우리 사회는 서양에서 300여 년의 시간 동안 서서히 경험한 근대화의 변화를 불과 50여 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압축적으로 경험하면서 그야말로 격변의 시기를 거쳐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전통 사회를 지배하며 사회구성원들의 행위를 규정하였던 규범도 크게 바뀌게 되었다. 우리 사회가 여전히 혼란 가운데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사회는 변화하고 있는데 전통적인 규범과 사고방식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근대적인 기준에 맞지 않는 비합리적인 일들이 일어나서 서로 충돌하는 것이다. 합리적인 사고보다는 아직도 전통적인 사고에 이끌리는 우리 사회에서는 불명확한 규정이나 절차의 허점을 노리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늘어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종교는 사회구성원들이 따라야 할 규범을 제시해야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종교는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지 못하다. 특히 개신교는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 사회구성원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실태도 조사를 포함하여 많은 개신교 관련 조사에서 개신교가 공신력을 잃고 있다는 결과가 나온 것이 이를 증명한다. 최근에 논란이 되었던 일련의 일들에서 볼 때 개신교의 모습은 우리 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라기보다는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하나의 이익집단과 같이 여겨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 사태 동안 교회가 보여준 모습은 공공 종교로서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다. 우리 사회에서 소통이 되지 않는 그들만의 왕국을 만들어가고 가는 형국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교회 생활에 열심일수록 사회에 대한 의식수준은 더 떨어지는 기현상까지 보이고 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사회와 소통하려 하기보다는 일방적으로 진리를 선포하고, 상대방을 단순히 전도 대상으로 여기는 태도를 보여 왔다. 절대 진리를 수호하는 입장에서 전도의 대상자와 타협하기 어려우며 도덕적 우월감으로 상대를 낮잡아보기 쉽다. 이렇게 자신의 집단 안에 매몰된 사람은 더 넓은 사회의 지평을 바라보지 못한다. 결국 이것은 한국 개신교가 더 이

1) 이 논문은 필자가 기존에 쓴 논문들을 수정하고 보완한 것이다.

상 기존의 성장주의 패러다임으로 교회를 운영하고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단순히 양적 성장이 아니라 교회에 내실을 기하며 우리 사회에서 공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할 때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정의롭고 공평한 ‘선한 사회’를 이룰 수 있을까? 그리고 거기에서 교회는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이 글에서는 교회가 우리 사회의 공동선에 기여하는 방안으로서 시민사회 참여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곧 오늘날 다양한 지향성을 가진 개인들이 부대끼며 살고 있는 공간인 시민사회의 영역에서 교회는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다. 다양한 가치들이 충돌하는 공간인 시민사회에 교회가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특히 최근에 시민 연대가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데, 종교 규범을 바탕으로 어떻게 사회적 연대를 형성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시민사회의 주요 주체 중의 하나인 교회가 우리 사회의 공동선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2. 시민사회의 이해

최근 우리 사회에서 시민사회에 관한 의제들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한국 사회가 절차상의 민주주의를 이룩한 이후에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한 방법들에 대한 논의들이다. 이것은 형식상의 제도는 법의 원리를 따르고 있지만, 실제 삶에서는 편법과 부정, 그리고 각종 비리가 횡행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 대한 성찰적인 차원을 포함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관념이나 정신보다는 눈에 보이는 물질을 따라 움직이는 물질문명 시대에 자신의 욕심만 채우기 보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많은 이들이 함께 고민하며 씨름하고 있다. 이러한 의제들이 시민사회라는 개념을 통해 논의가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 사용되는 ‘시민’이란 용어는 특정한 부류의 계층을 가리킨다기보다는, 특정한 가치와 행위를 뜻하는 말로 더 자주 사용된다. ‘시민다움’이란 말이 그러한 보기이다. 이때 시민은 ‘시민다움’의 가치와 그 가치에 바탕을 둔 시민지향성의 행동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 된다. 다시 말하면, 시민이란 “공공의 문제에 관심을 가질 뿐 아니라,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유롭게 토론하고 참여할 수 있는 ‘시민성’”을 가진 존재를 뜻하는 것이다(이 승훈, 2008: 45).²⁾ 따라서 시민은 자기 자신의 이익을 구하거나 자기 가족의 이익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고 자신과 가족의 울타리를 넘어서 공공의 영역으로 관심을 확장시키고 실제로 참여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시민사회란 바로 이런 시민들의 상호 교섭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시민사회란 중세의 전통, 신분, 종교 등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시민들의 존재를 전제하며, 외부의 어떤 강제도 부정하고 시민들의 자율적인 공간이라는 점에서 국가 영역과 대비되어 사용된다. 또한 각각의 개인들이 사사로운 필요와 이해관계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사적 영역이지만, 동시에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가 논의되고 스스로 살아갈 질서를 만드는 곳이라는 점에서 공공 영역이기도 하였다. 이처럼 시민사회는 개인과 공동체, 사사로움과 공공성이 서로 충돌하고 조절되는 공간으로 이해되었다.

이러한 시민사회를 이해하는 방식은 몇 가지로 구분된다. 먼저 고전적 자유주의 시각으로,

2) 이승훈. “시민사회 사상의 역사와 딜레마”. 굿미션네트워크 엮음. 『시민사회 속의 기독교회』.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08, 45.

이들은 시민의 정치적인 자유와 법적인 권리 보호에 관심을 갖고, 국가권력이 시민사회에서 기원할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 국가의 간섭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다음으로, 맑스주의 시각에서는 시민사회를 부르주아가 지배하는 계급사회로 이해하였기 때문에 시민사회는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통해서 극복되어야 할 대상으로 여겨졌다. 마지막으로 하버마스를 중심으로 한 비판이론의 관점에서는 시민사회가 국가와 시장으로부터 분리된 제 3의 영역으로 이해된다. 국가와 시장을 지배하는 목적합리성과 달리 시민사회는 의사소통의 합리성이 중시되고, 이를 바탕으로 한 공공 영역이 시민사회의 사적인 영역과 국가를 매개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³⁾

시민사회는 매우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최근에는 국가/시장/시민사회라는 3분 모델이 정착되어 가는 상황이다. 학자들에 따라서는 3분 모델의 시민사회 개념 대신에 제3섹터, 공동체 영역 등의 개념을 쓰기도 한다. 이는 근대 시민들의 자유스러운 활동 공간이 모두 시장 영역으로 환원될 수 없다는 반성으로부터 나왔다. 이제 하나의 사회를 구성하는 활동 영역은 크게 3부분으로 이해되기 시작한다. 곧, 정부의 통치 활동이 일어나는 정치 사회 영역으로서 국가, 이윤 동기에 의해 움직이는 경제 주체들의 활동 공간인 시장, 그리고 시민들의 자유스러운 참여와 결속, 토론과 합의, 그리고 사회운동의 영역으로서 시민사회 등이 그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버마스 스스로가 시민사회와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는 ‘공론 영역’을 오늘날 많은 학자들은 시민사회라는 명칭으로 부르는 것이다.⁴⁾

이러한 공공의 담론은 몇 가지 특징을 갖는데, 첫째로 공공의 담론은 공동의 것과 관련된 다. 여기서 공동이라는 것은 단순히 똑같은 것을 추구한다는 것이 아니고, 더불어 살기 위해 사람들이 동의하는 것에 대한 공동의 헌신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것이 존 듀이가 “우리의 사회적 상호작용”이라는 말을 썼을 때 의미하는 것인데, 낯선 사람들(이방인들)조차도 사회를 형성하기 위해 동의할 때 공동의 역사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이다.⁵⁾ 이런 점에서 기독교인들이 비기독교인들과 공동선을 공유한다면 통일성 있는 사회를 함께 만들고 유지할 수 있다. 둘째로, 공공의 담론은 단순히 공동의 것이 아니라 공동선과 관련된다. 이런 점에서 공공 담론은 도덕적인 담론이다. 선한 삶과 시민의 미덕, 도덕적인 의무와 관련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종교 사회학자인 로버트 우스노우는 공공의 담론을 “집합의 가치에 도달하는 과정”이라고 보았다.⁶⁾ 셋째로, 공공의 담론의 양식은 강요나 조작이 아니라 이성과 설득이다. 하버마스는 “의사소통의 공동체”를 공공의 포럼과 실천적인 담론에의 참여라고 규정하고 규범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이성을 수용하고 규범이 옳다고 규정하는 것에 대한 확신에 도달하는 것이라고 표현하였다.⁷⁾

이와 같이 공론의 장으로서의 시민사회는 국가와 시장으로부터 억압이나 통제받지 않고 개인의 권리를 보호해 준다. 시민사회는 법과 정치의 강제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결사의 자유가 적용되는 자원의 영역이고, 이윤과 이기심보다는 헌신에 의해 동기 부여되는 삶의 영역들과 관련된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이러한 시민사회 영역을 공공의 영역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공공 영역은 사회구성원들이 기존하는 삶의 망을 조정하고 재조정하는 참여의 마당을 가

3) 강수택. “공공영역에서 연대 영역으로”. 『사회와 이론』. 9호(2006), 246-247.

4) 이승훈, 윗글, 59.

5) Dewey, John. *The Public and Its Problems*. New York: Henry Holt & Co. 1927.

6) Wuthnow, Robert, ed. *Between States and Markets: The Voluntary Sector in Comparative Perspectiv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1, 22.

7) Habermas, Jürgen/Thomas McCarthy 역. *Legitimation Crisis*(Boston: Beacon Press, 1973), 103-105.

리킨다. 이 마당은 그 나름의 가치와 규범을 가지고 있으며 그 나름의 정당성에 터하고 있다. 시민사회는 그 사회에 어울리는 상징과 가치를 제도화하고 있는 참여의 마당을 확보하고 있음을 말하며, 시민은 곧 이 마당에 참여하는 주체를 뜻하는 것이다.

여기서 공공성은 헤게모니와 당파성이나 다원주의 너머에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공공성은 자기이해 자체를 성찰적으로 대상화하고, 궁극적으로 자기이해를 넘어서는 시야를 획득하지 못하면 결코 도달할 수 없다. 공공성은 또한 다원주의 시각 너머에 있다. 다원적 이해의 절충만으로는 공공성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계시민사회 또는 완전한 시민적 정체의 일원으로 생각하는 것이 공공성의 근본이다.⁸⁾ 그러나 이러한 공공성을 현실에서 구현하기 어려운 것은 공공성이 무엇인지 몰라서라기보다는 모든 인간 행위자들 스스로가 예외 없이 강력한 이해관계의 당사자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개인들의 사사로운 이해관계를 넘어서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규범과 제도적 틀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시민사회에서 공공의 담론을 발전시켜야 한다.

3. 교회의 공공성

기독교 신앙은 개인의 사적인 영역에 머무르지 않고 공적인 영역에서 표출되어야 한다. 코로나 사태 동안 교회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는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교회는 여전히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하고 우리 사회에 대한 막중한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한다.⁹⁾ 신학자들은 성서에 기초한 공동체는 자신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공동체를 이룸으로써 공동체 밖의 사람들에게도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여력을 가지게 된다고 말한다. 따라서 공동체는 타인을 위한 삶을 지향해야 하며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삶이다.¹⁰⁾ 기독교 공동체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세워진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세워진 공동체이다. 이러한 공동체들이 모여 시민사회를 이룸으로써 시민사회의 원리가 약자를 보호하는 공동체 원리가 되게 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사회 임무이다. 이러한 공동체들은 시민사회를 위한 결속에 가장 기초가 되는 조직이다.¹¹⁾

이러한 신앙의 공공성은 최근에 공적 신학 또는 공공 신학으로 나타나고 있다. 공적 신학은 성서가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 복음에 기초하여 교회와 신학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신학이다. 그러나 공적 신학에 대한 신학자들의 일치된 정의는 존재하지 않으며 매우 광범위하기도 하고 다소 모호한 가운데 있다.¹²⁾ 공공성의 개념도 마찬가지로이다. 공공성 역시 매우 다양하며 때로는 서로 모순되는 내용을 담기도 한다.¹³⁾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신앙은 사적인 영역 안에 머무르지 않으며 종교의 자유라는 명분 아래 공익에 반하는 신앙은 존재할 수 없다는 의미를 포함한다. 나아가 사회의 공동선을 이루기 위한 책임 의식을 강조한다는 것은 공통된다고 할 수 있다. 공공 교회와 공공 신학이라는 말을 처음 사용한 마틴 마티는, 교회가 기독교 전통으로부터 공공의 이익을 명료화하고 이 공익에 대한 관심을 지

8) 김상준, “원칙이자 과정으로서의 공공성: 존 롤스의 「정의론」을 넘어서”, 『시민사회와 NGO』, 2007.

9) 이도영, 『코로나19 이후 시대와 한국교회의 과제』(서울: 새물결플러스, 2020), 8.

10) 김현진, 『공동체적 교회 회복을 위한 공동체 신학』(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1998), 423.

11) 권진관, “국가, 시민사회, 교회,” 『기독교사상』, 495(2000), 45-46.

12) 윤철호, 『한국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공적 신학』(서울: 새물결플러스, 2019), 331.

13) 최경환, 『공공신학으로 가는 길』(고양: 도서출판 100, 2019), 29. 공공성의 다양한 개념에 대해서는 성석환, 『공공신학과 한국사회』(서울: 새물결플러스, 2019), 40-46을 볼 것.

향하는 공익 우선의 신앙에 공헌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¹⁴⁾

이것은 바로 종교의 공공성과 관련되는 것으로 뒤르케임으로부터 파아슨스와 벨라를 거쳐 내려오는 종교사회학의 주요 주제이다. 일찍이 뒤르케임이 종교의 근원을 사회라고 본 것과 같이, 한 사람의 종교 신념은 전부 개인의 것이고 사사로운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개인의 신앙조차도 개인 수준에서 머물지 않고 공동체와 사회 수준에서 발현되기 때문이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사사화’(privatization)된 신앙이 조장되어 왔다. ‘사사화’란 현대 사회에서 종교가 사회 영역에서 퇴거하여 개인의 영역에 머물게 되는 현상으로 개인주의화된 종교를 가리키는 종교사회학 용어이다. 피터 버거는 사사화된 종교가 개인의 선택이나 선호의 문제로 전락했다고 말한다.¹⁵⁾

그러나 이러한 종교의 추구는 그 내부 속성상 공동체 삶을 부정하기 때문에 재생산 자체가 불가능하고 설령 이러한 공동체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다원화된 현대 사회에서 어떠한 기여도 할 수 없을 것이다.¹⁶⁾ 로버트 벨라는 이러한 개인주의 종교의 출현과 확산에 대해 우려하면서 시민 종교를 강조한 바 있다.¹⁷⁾ 그는 종교가 대중의 이익에 관한 공동의 토론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종교의 공적인 성격을 강조한다.¹⁸⁾ 그리고 이것이 선한 사회를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본다. 종교에 대한 벨라의 생각을 이어받은 로버트 우스노우는 현대 사회에서 공공 종교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공공 종교를 말하는 것은 개인들이 사사로운 영성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사회의 선을 위해 책임감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과, 그들의 집합 가치에 대한 성스럽고 초월의 모든 것에 대해 공공 영역 자체가 개인들 사이에 책임감이라는 의미를 강화해야만 한다는 것을 제안하는 것이라고 말한다.¹⁹⁾

호세 카사노바는 많은 사회학자들이 현대 종교의 특징으로 꼽는 사사화 현상은 보편적인 현상이 아니라고 보면서 ‘탈사사화’를 통한 공공 종교의 가능성을 주장한다. 그는 “근대성의 구조를 규정하는 구조의 흐름인 제도의 분화와 달리, 종교의 사사화는 역사에서 선택의 문제, 확실히 ‘선호된 선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선택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최근 몇 년 동안 많은 국가에서 사사화라는 역사의 선택을 거부하는 ‘공공 종교’가 등장했으며, “현대 세계에서 종교의 ‘탈사사화’를 목격하고 있다.”고 말한다.²⁰⁾ 탈사사화란 앞에서 종교의 쇠퇴를 의미하는 세속화뿐만 아니라 종교의 사사화를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리킨다. 이러한 탈사사화를 통해서 공공종교로서의 역할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코로나 상황 이후에 우리 사회의 공동선을 위한 공론의 장에 교회도 시민사회의 일원으로

14) Martin E. Marty, *The Public Church*(New York: Crossroad, 1981), 12.

15) 피터 버거/이양구 역, 『종교와 사회』(서울: 종로서적, 1982), 151-152.

16) Robert Wuthnow, *Christianity and Civil Society: The Contemporary Debate*(Pennsylvania: Trinity Press International, 1996), 36-40.

17) 시민 종교는 특정 종교와 상관 없이 모든 시민들의 사고와 관습 속에 존재하면서 시민들을 결속시키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시민 개인이 사사롭게 가지고 있는 종교 신앙과는 다르며 국가가 표상하는 궁극의 의미와 자체 인식의 내용에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시민 종교는 국가가 행사하는 종교 차원의 역할을 넘어설 수 있는 초월 가능성을 자체 속에 담고 있어서 단순히 통합의 기능 뿐만 아니라 변혁의 기능도 할 수 있다. 박영신, “잊혀진 이야기: 시민사회와 시민 종교,” 『현상과인식』, 24/1·2(2000), 81-82. 시민 종교에 대한 벨라의 글로 Robert N. Bellah, “Civil Religion in America,” *Daedalus*, 1967, 또는 Robert N. Bellah, *Beyond Belief*(New York: Harper & Row, 1970), 9장을 볼 것.

18) Robert N. Bellah 외, *The Good Society*(New York: Alfred A. Knopf, 1991).

19) Robert Wuthnow, *Producing the Sacred*(Urbana and Chicago: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1994), 8-11.

20) Jose Casanova, *Public Religions in the Modern World*(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4), 4-6.

참여해야 할 것이다.²¹⁾ 여기서 한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은 단순히 사회에 대한 관심과 책임을 갖는다고 해서 공공성이 담보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정교분리를 주장하던 한국교회에서 최근 10여 년 사이에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면서 다양한 활동들이 벌어지고 있으나 오히려 공공성을 훼손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 중심의 사고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공정성의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책임을 운운하며 정당화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사로운 이해관계나 교회 중심의 사고를 넘어서 우리 사회 전체의 공평성과 공공선에 기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여기서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기독교인들이 비기독교인들과 공공의 의제에 대해서 토론한 경험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공동이라는 것은 확실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더불어 살기 위해 사람들이 합의를 이루는 과정에 공동으로 헌신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전래 초기의 기독교는 다양한 사회적 실천을 하였으나 오늘날의 제도화된 기독교는 대부분 교회 울타리 안에서 교인들끼리만 의미 있는 관계를 맺고 있을 뿐이다. 이런 방식으로는 사회적 연대가 가능하지 않다. 따라서 단순히 선언적 차원의 연대가 아니라 구체적인 협력의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²²⁾

이러한 종교의 공공성은 종교가 시민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일종의 사회 자본이 되기도 한다. 사회 자본에 대해서는 다른 여러 글에서도 밝혔듯이, 협력 행위를 촉진하여 사회에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사회 조직의 속성을 가리키는 말이다. 로버트 퍼트넘은 시민의 참여가 사회 자본의 주축 형태라고 인식하고 종교의 중요성을 시민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 자본으로 생각했다.²³⁾ 종교 모임을 통해서 사람들은 다른 시민 조직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대인 관계에 대한 기술을 습득하고, 공공 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연결망을 발전시키면서 사람들이 서로 교섭하고 신뢰하는 것을 배우는 장소가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회 자본을 바탕으로 종교는 시민사회에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한국교회 역시 시민사회에 관한 의제들을 제기하는 노력에 참여해왔다.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우리 사회의 주요 주제들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사회 참여를 해왔고, 사회 복지 활동에도 다른 종교 기관에 비해 높은 참여를 나타내왔다. 그러나 이러한 한국교회의 활동은 교회 안에 있는 일반 구성원들의 활동이라기보다는 주로 목회자를 비롯한 교회 지도자들과 명망가들을 중심으로 한 활동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시민사회는 시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사회이고, 풀뿌리로부터의 실제적인 참여가 있어야만 진정한 의미에서 시민들이 주인이 되고 주체가 되는 사회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교회가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머물지 않고, 울타리 밖의 사회와 의사소통하며 참다운 시민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 조용히 머물러 있거나 기껏해야 교회 안에서의 활동에 몰두하고 있는 대다수의 한국교회 구성원들이 한국 사회에서 의미 있는 참여자가 될 수 있도록 어떻게 동기를 부여하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교회의 공공성을 바탕으로 감당해야 할 사회적 역할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21) 성석환, “코로나 19시대 뉴 노멀의 윤리적 가치로서 ‘공동의 선’과 한국교회,” 『기독교사회윤리』, 47(2020), 140.

22)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사회 상황에서 어떻게 협력하고 대화할 수 있는지 탐구하는 리처드 세넷의 연구를 참고할 만하다. 그는 일사불란한 통일성과 하향식 연대를 주된 방식으로 차용하는 연대방식은 적절하지 않으며, 그보다는 구성원들 간에 열린 포괄성의 좌충우돌을 감내하며 풀뿌리 상향식 연대를 구현하는 연대 방식이 더 충실한 협력적 의례의 방식이라고 주장한다. 리처드 세넷/김병화 역, 『투게더』(서울: 현암사, 2013), 40-44.

23) 로버트 퍼트넘/안청시 외 역, 『사회적 자본과 민주주의』(서울: 박영사, 2000), 281.

4. 공동선 기여를 위한 교회의 역할

1) 시민사회와 교회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관점에 따라 시민사회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게 정의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정의에 따르든지, 토크빌이 이미 한 세기 반 전에 미국 사회에 대하여 지적한 바와 같이, 자발 결사체가 시민사회의 중요한 일부이며, 따라서 다른 종교 조직들과 함께, 교회 역시 시민사회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 사회과학계에서는 새로운 관점에서 교회를 주목하고 있다. 그것은 이른바 '제3섹터'로 불리는 비영리·비정부 영역이 국가와 시장에 대한 대안의 패러다임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서부터이다. 국가의 통제로부터 자유롭고 시장 경제 체제로부터 벗어나 있는 교회는 당연히 제3섹터이자 시민사회 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²⁴⁾

토크빌 이래 사회학자들은 민주주의에서 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인식해왔다. 로버트 퍼트남은 교회가 많은 사회 운동을 위한 조직적이고 철학적인 기초를 제공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토크빌의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퍼트남은 사회 자본을 중요하게 인식하였다. 사회 자본이란 협력 행위를 촉진해 사회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회 조직의 속성을 가리키는 말로, 사회학자인 퍼트남은 사회 자본은 생산성이 있기 때문에 특정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가능하도록 해 준다고 말한다.²⁵⁾ 곧 구성원들이 서로 신뢰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믿음을 보이는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많은 것을 성취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퍼트남은 「나홀로 볼링(Bowling Alone)」라는 책에서 미국에서 볼링리그의 감소가 자발적 시민 결사체를 통한 공동체의 참여가 급감하고 있는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말한다. 볼링장에서 맥주와 피자를 들면서 사회적 교류를 하고 공동체의 문제에 관해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줄어들고 자기만의 여가를 즐기려는 나홀로 볼링족만 북적대고 있다는 사실은 미국의 사회 자본의 감소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²⁶⁾

퍼트남은 시민의 참여가 세 가지 측면에서 사회 자본의 주축 형태라는 것을 인식한다. 첫째로, 시민의 참여는 자원적인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헌신에 의존하고 공공 생활에 도덕적인 덕목의 중요성을 들여온다는 것이다. 둘째로, 시민의 참여는 지역적인 것이기 때문에, 개인들에게 그들의 공동체에서 영향력이 있게 할 수 있다는 의식을 부여한다. 그리고 셋째로, 시민의 참여는 사회적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필요조차도 다른 사람과의 교제 속에서 가장 잘 추구될 수 있다는 것이다. 종교 활동은 이러한 시민의 참여를 촉진하는 사회 자본의 한 형태가 되고 있다. 종교 모임은 다른 시민 조직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대인 기술을 얻고, 직업, 후원 집단, 공공 행사에 절대 필요한 정보가 의존하는 연결망을 발전시키면서 사람들이 서로 교섭하고 신뢰하는 것을 배우는 장소가 되기 때문이다.²⁷⁾

24) Ahearn, David Oki. "Aliens and Citizens: Competing Models of Political Involvement in Contemporary Christian Social Ethics". Dale McConkey·Peter Augustine Lawler 엮음. *Faith, Morality, and Civil Society*. Lanham: Lexington Books, 2003, 198.

25) 로버트 퍼트남, *윗글*, 281.

26) Robert D. Putnam,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New York: Simon & Schuster, 2000), 4장.

27) 시민사회에서 종교의 역할에 대해서는, David Herbert, *Religion and Civil Society: Rethinking Public Religion in the Contemporary World*(Burlington: Ashgate Pub Ltd, 2003), 1부 3장을 볼 것.

한 걸음 더 나아가 최근에 몇몇 학자들은 종교성에 기초한 참여가 다른 형태의 시민 참여를 위한 통로가 된다고 말한다. 그 이유는 첫째, 교회는 시민사회 내의 중요한 자원 결사체의 하나이며, 개인의 극단적인 이기성을 제어할 수 있는 공동체의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시민사회 논의에서 언제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주체 가운데 하나가 바로 교회와 관련 단체들이다. 벨라는 미국 사회의 공공성 회복을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기독교 전통의 회복을 주장하고 있고, 위에서 언급한 퍼트남 역시 교회 및 그 관련 소그룹들을 미국 공공성의 중요한 범주로 다루고 있다. 그리고 로버트 우스노우는 아예 「기독교와 시민사회」라는 제목의 책을 통하여 그 가능성을 탐색하고 있기도 하다.²⁸⁾ 두 번째 이유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화 자원 때문이다. 개인 안에 내재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정하고 타인에 대한 헌신이나 돌봄 등의 윤리를 강조하는 것은 기독교 교리 안에서 본래부터 내재한 것들이다. 따라서 사회의 공공성 실현이라는 과제는 교회가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교리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다.²⁹⁾

개인 사이의 신뢰가 사회 전체의 신뢰 구조를 만들어내는 선순환의 구조가 있듯이 사회 안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교 단체의 사회 참여와 봉사는 다른 자발적 결사체에 자원을 공급하기도 하고 다른 조직들의 활성화에도 기여한다. 이것은 종교 단체가 신자들의 신앙에 영향을 주어 신자들의 사회 참여와 봉사를 유도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이다. 개인 단위의 자원 봉사가 아니라 집단 단위의 자원봉사가 시민 공동체 만들기에 더 큰 기여를 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교회와 같은 종교 단체의 사회봉사나 사회 참여는 중간 집단이나 매개 집단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 사회 또는 시민사회의 조직화, 공동체 만들기에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신자들이 비종교적 사회단체에 참가하도록 촉진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교회는 시민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조직이다.

여기서 우스노우가 시민사회에서 교회의 역할로 제시하는 세 가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는 정체성 정치(identity politics)이고 두 번째는 실용적 보편주의, 세 번째는 시민 비평(civil criticism)이다. 먼저, 정체성 정치라는 개념은 최근 몇십 년 사이에 흑인, 히스패닉, 페미니스트, 게이와 레즈비언, 그리고 자신들이 억압받는 소수자라고 주장하는 집단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등장하였다. 정체성 정치는 우리가 살고 있는 다문화주의 세계의 중요한 특징이다. 그것은 차이에 대한 공식적 인정을 포함하여, 차이에 대한 깊은 존중이라는 이름으로 다수 대중들의 사고에 도전하고 있다. 소수자 집단의 개별 성원들은 인종주의, 성차별주의, 동성애 혐오증, 그리고 다른 편견들과 싸우기 위해서 서로 뭉쳐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체성 정치는 새로운 주장이 논의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사회를 확장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³⁰⁾

두 번째 방식은 실용적 보편주의의 태도를 취하는 것이다. 우스노우는 이 용어를 이러한 입장을 가진 신학 그 자체에 명백하게 드러나 있는, 포괄성의 지향(inclusive orientation)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 용어를 사용하는 또 다른 이유는, 이러한 포괄성이 현실적인 이유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나타내기 위해서이다. 우스노우는 이러한 대응과 정체성 정치 사이의 대비점은 벽돌과 스폰지 사이의 차이로 비교한다. 최근 다문화주의에 대한 지배적인 미국 기독교인의 대응은 벽돌이라기보다는 스폰지였다고 할 수 있다. 늘어가는 다양성에 직면하여, 기독교인들은 스스로에게 말하기를, 아무 문제도 없으며, 우리는 그 다양성을 잘

28) 로버트 우스노우/정재영·이승훈 역, 『기독교와 시민사회: 현대 시민사회에서 기독교인의 역할』(서울: CLC, 2014).

29) 교회와 시민사회에 대하여, 박영신, “개신교 정신과 ‘시민다움’의 삶,” 『현상과인식』, 115호(2011년 12월)를 볼 것.

30) 로버트 우스노우, 앞글. 141-143.

다를 수 있고, 또 실제로 그것을 환영한다고 말한다. 시민사회에 대한 우리의 관심과 관련하여 볼 때, 문제는 실용적 보편주의가 너무 스폰지 같이 흡수만 하기 때문에 사회 문제에 대하여 구별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는 점이다.³¹⁾

세 번째는 시민 비평인데, 종교가 다원화된 사회에서 이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독교 시민들로 하여금 지성 세련됨(sophistication)을 가지고 다양한 차이들에 접근해야 한다. 차이와 지적 세련됨을 함께 조화롭게 수용한다는 것은, 기독교가 예언자적 역할을 회복하면서 어떻게 비판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 그리고 실제 그러한 비판을 제도화할 수 있는 참신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할 수 있을지, 그 구체적인 대안들을 고려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우스노우는 앞의 두 방식보다는 시민 비평으로서의 역할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우스노우는 종교 분야의 분명한 하나의 측면으로서 비평은 과거보다, 특히 종교 담론이 대중 시장의 영향에 종속되어 있는 지금, 더 많은 주목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비평은 가장 일반적인 형식의 종교 담론인 설교와는 구별되는데, 설교는 자의식적인 비평의 행위라기보다는, 일종의 공연(performance)에 더 가깝다. 설교자는 연극에서의 배우와 같이 공연자(performer)이며, 같은 맥락에서 이들에게 비평가로서 역할을 기대할 수는 없다. 반면에, 비평은 대중문화 또는 다른 교파나 종교 표현들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이다.³²⁾ 비평은 또한 종교에 관한 학술적 연구와도 다른데, 비평은 학자적 전문지식에 의존하지만, 자기 고백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하거나, 또는 종교와 시민사회의 관계에 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외부자의 관점으로부터 발언을 한다는 점에서, 좀 더 직접적으로 시민사회와 관계된다.³³⁾

시민사회는 다양한 가치들이 충돌하고 또한 조정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교회가 스스로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초월성의 종교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우스노우가 제시한 이러한 원리들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우리 사회와 같이 여러 종교가 공존하고 있는 다종교상황에서 정체성 정치는 오히려 사회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고 반대로 실용적 보편주의는 정체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미국 사회에서와는 또 다른 측면에서 정체성 정치의 방식을 취해왔다고 볼 수 있다. 스스로 사회로부터 비난을 받아온 데 대한 피해의식에서 주위 환경들과 대적하고 충돌하기를 마다하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 사회와 같은 다종교 사회에서 요구되는 교회의 역할은 시민 비평가로서의 역할일 것이다.

2) 공공성을 향한 인식의 전환

한국 교회가 시민사회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기독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독교 시민으로서의 삶을 실천하며 살아야 하고, 또한 하나의 조직으로서의 교회 역시 공공의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한국에서 선교 초기에는, 개종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기독교인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고 성경을 공부하며 설교를 들었던 동네 가옥의 사랑방이 교회의 역할을 하였다. 초기에 여자 선교사들은 안방에서, 남자 선교사는 사랑방에 들러 각각의 공간에서 대화의 문을 열기 시작하였으나 이후에 안방이라는 사사로운 공간에 갇혀 공공의 자리로부터 고립되어 있던 여성들도 교회의 공공 공간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교회에서는 남녀와 신분의 차별이 없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토론회가 활성화되었으며 자원

31) 윗글. 151-153.

32) 윗글. 160-162.

33) Mark A. Noll, *The Scandal of the Evangelical Mind*(Grand Rapids, Mich.: Eerdmans, 1995).

조직으로서의 교회가 전국 곳곳에 세워지면서 공공의 공간으로서 수평의 의사소통을 수행하는 시민들의 공간이 되었다. 그리하여 교회에 속한 교인은 공공의 공간에 참여하는 자를 뜻하였고, 초월의 가치에 자신을 이어 기존하는 관행을 허물어뜨릴 수 있는 새로운 삶에 헌신하겠다는 공중 앞에서 선서하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당시의 기독교인이었다.³⁴⁾

그러나 오늘날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이와 같은 기독교 시민으로서의 직분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 신앙과 삶은 철저히 분리되어 자신의 신앙이 삶의 영역에서 기독교 정신에 따라 실천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사회생활을 하는 공간은 그 자체의 논리와 기제에 따라 작동하고 있으며, 여기에 기독교 신앙은 비집고 들어갈 여지가 없다. 기독교 신앙은 식사 전에 기도를 한다든지, 술 담배를 금한다든지 하는 개인의 사사로운 경건 생활의 영역에서만 영향력을 발휘할 뿐이다. 그리하여 기독교 정치인은 조찬기도회는 열심히 하지만 정치판은 정치 논리대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할 뿐 기독교 정신을 어떻게 실현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한다. 기독교 경제인은 아침 경건의 시간은 갖지만, 자본의 논리에 짓눌려 여느 기업인과 마찬가지로 노동자를 착취하고 세금을 탈루하기도 한다.

교회는 교회대로 교인들이 예배에 잘 참석하고 헌금을 잘 하기만 하면 이른바 ‘독실한 기독교인’이라고 여긴다. 개개의 기독교인들이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회의 공공성 회복을 위해서는 먼저 의식의 전환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제까지 한국의 개신교는 교회와 사회의 관계에 대해서 지나치게 이원론적 사고방식을 견지해 왔다. 곧 교회 안에서의 생활에 일차의 중요성을 부여하고 일상생활의 영역에 대해서는 중요성을 인정하지 않아, “죄악이 가득하고 썩어 없어질 세상”으로 치부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이원론적 사고는 기독교인으로서의 사회생활에 올바른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여 기독교인들을 분리주의자 또는 배타주의자로 만들어 버린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이 사회는 비록 죄악이 넘쳐난다고 해도 포기하고 방치되어야 할 곳이 아니라, 똑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구현되어야 할 공간이다. 하나님은 교회뿐만 아니라 이 세상 만물의 주님이시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회 안에서의 삶에만 높은 가치를 부여할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요구되는 엄격한 윤리 기준을 모든 기독교인들의 사회생활에도 확대하여 적용해야만 한다. 교회에서는 세속 사회의 모든 활동에 대하여 기독교의 가치를 부여하고 기독교인들이 따라야 하는 윤리적인 지침을 마련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강단에서 전해지는 목회자의 설교도 공공성을 지닌 설교가 되어야 한다. 현대 사회에서 종교의 사사화 경향은 설교의 주제를 개인의 안위와 행복, 마음의 평안에 대한 내용으로 축소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사회에서 종교 활동은 사회활동의 근거가 되기보다는 자신의 입신출세나 개인의 영달을 추구하는 수단이 되어버렸다. 교회의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사사로운 영역에 속하는 주제들보다도 사회 공공의 영역에 속하는 주제들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교회 구성원들에게 정치나 경제 또는 사회 다른 분야에 대한 공공의 문제들에 대하여 기독교 관점에서 접근하는 설교가 제시되어야 한다.³⁵⁾

그리고 교회 내부 활동만 아니라 교회 밖 활동도 교회에서 중요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한다. 평신도는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기독교인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 ‘작은 목자’라

34) 박영신, “‘공공의 공간’ 형성과 확장: 한말 조선 사회와 그 이후,” 『사회이론』, 2004년 봄/여름호, 21-26.

35) 이에 대하여는 정재영, “세속화 시대에 설교의 의미,” 박영신·정재영, 『현대 한국 사회와 기독교』(서울: 한들, 2006)을 볼 것.

는 개념은 평신도를 동역자로 인정한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만하나 자칫 평신도에게 교회 안에서의 활동이 중요하고 사회에서의 활동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오해를 줄 수도 있다. 물론 교회 안에서의 활동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필요에 따라 그리고 은사에 따라 각각의 영역에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태도가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교회 안팎에서 맡은 바 역할과 책임을 다함으로써 균형 있고 온전한 기독교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3) 소그룹을 통한 교회의 시민사회 참여

교회가 시민사회에 참여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교회마다 가지고 있는 소그룹을 기독교인 조직으로서 활용하는 것이다. 퍼트남은 시민의 참여가 사회 자본의 주축 형태라고 인식하고 종교의 중요성을 시민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 자본으로 생각했으나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비관적으로 바라보았다.³⁶⁾ 현대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임들은 대부분 원자화된 개인들의 모임이기 때문이다. 서로 옆에 앉아서 같은 광경을 보지만 이들 사이에 상호작용이 거의 없는 영화관이나 경기장에서의 모임과 큰 차이가 없다. 현대 사회에서도 과거와 같이 사람들이 교회에 가지만 교회의 다른 구성원들과의 사이에서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는 인간관계를 발전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사회학자들은 사회 구성원들의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사회 활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사회 자본으로서 교회의 쇠퇴가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현대 교회들에서 의미 있는 사회관계를 형성시켜 나가는 구실을 하는 것이 바로 소그룹 활동이다. 소그룹은 거대한 교회 안에서 정체성을 잃어가는 교회 구성원들을 작은 집단으로 묶어 친밀감을 느끼게 한다. 이를 통해서, 소외감을 느끼며 공동체를 갈구하는 현대인들에게 일종의 안식처를 제공해 주는 기능을 하고 있다.³⁷⁾ 뿐만 아니라 소그룹 안에서는 공공의 토론을 하는 사회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에 현대의 시민사회를 지탱할 수 있는 하나의 사회 자본으로 형성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미국의 소그룹 운동에 대해 종교사회학 관점에서 많은 연구를 한 우스노우는 이것이 현대 사회에서 소그룹 운동이 매우 중요하게 된 이유라고 말한다.³⁸⁾

소그룹에서의 사회 교섭은 소그룹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종교 활동이 개인의 사사로운 영역에 머물지 않고 공공의 영역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현대 사회에서 종교 수행은 사사로운 개인의 행위로 환원되어 설명되는 경우가 많지만, 소그룹에서의 종교 행위는 그 자체로 사회성을 띄고 있기 때문에 공공의 차원을 갖게 되는 것이다. 특히 소그룹 활동에서 개발되는 인간관계는 시민 조직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사회 자본을 형성하고, 지원 집단이나 공동 작업에 필요한 연결망을 발전시키게 된다. 이를 통한 구성원들 사이의 신뢰 형성이 공동체 의식을 표출하게 된다고 보는 것이다. 전통의 공동체가 무너진 후 파편화되고 불확실성이 증가된 사회에서 사는 현대인들은 신뢰할 수 있는 관계의 형성을 필요로 하는데, 소그룹 안에서의 친밀한 교섭을 통해 이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교회 소그룹은 시민적 연대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시민사회의 특성을 감안할 때, 공공 영역에서 사람들 사이에 사회 교섭을 증가시키고 도덕성에 대하여 동기 부여할 수 있는 집합적인 가치들을 형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미국에서는 소그룹

36) 퍼트남은 자신의 책에서 교회의 내부 결속력을 bonding social capital로 연합 활동을 bridging social capital로 표현하였다.

37) 정재영, 『소그룹의 사회학』(서울: 한들출판사, 2010).

38) Wuthnow, Robert. *Sharing The Journey: Support Groups and America's New Quest for Community*(New York: Free Press, 1996), 35.

이 실제로 많은 점에서 전통적인 시민 결사체로서 기능한다고 보고되고 있다.³⁹⁾ 이와 같이 교회의 소그룹은 교회 자체를 공동체화 시킬 뿐만 아니라, 교회가 사회와 접촉점을 만들 수 있는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우스노우는 특히 오늘과 같이 종교가 완전히 사사화(privatization)되어서 사람들이 더 이상 누구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신하지 못할 때, 소그룹 안에서의 사회 교섭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곧 공동체주의 운동의 지지자들과 자원 결사체의 지도자들이 했던 것처럼 사회 교섭을 더 많이 증진시키는 것이다. 우스노우에 따르면, 사람들이 이 공동체 환경에서 서로 교섭할 때 대인 신뢰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신뢰감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관점에서 절대로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을 심어주며, 시민적 연대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런 공동체의 일원인 기독교인들은 다른 기독교인들이 신뢰받을 수 있다고 확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이며 소그룹 운동은 이런 식으로 기독교인들이 시민으로서 종사하게 되도록 북돋는다는 것이 우스노우의 분석이다.

특히 혈연과 지연의 굴레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근대 이전의 유사 가족주의의 문화, 그리고 경제 논리 아래 다른 모든 가치들을 귀속시키는 이기적인 경제주의의 논리가 우리 사회의 대표가 되는 윤리 지향성으로 지적되고 있는 현실에서 교회 소그룹을 통한 공공성의 확장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⁴⁰⁾ 신앙을 바탕으로 한 소그룹의 공공성이 교회 울타리를 넘어 사회로 확장된다면 우리 사회가 보다 정의롭게 작동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교회의 소그룹 역시 이러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나 그것이 명확하게 표출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소그룹 활동에 대한 참여가 사회 공공 영역으로의 참여로 원활하게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그룹의 가능성은 소그룹을 옳은 방향으로 이끌려는 소그룹 운동의 지도자와 참여자의 공동 노력에 달려 있다.

이를 바탕으로 소그룹 참여자들이 사회의식을 갖고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 사회생활에서 양심 있는 시민이 되도록, 사회를 개선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세우고 운영하기 위해 주도권을 쥐도록, 정치 문제들에 대해 잘 알뿐만 아니라 자신의 양심에 따라 지지하거나 반대하도록 격려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소그룹 참여자들은 개인으로서 그들이 관심 갖는 시민단체, 사회 운동 단체에 책임감을 갖고 참여하도록 권장되어야 한다. 그리고 가능할 때마다 자신이 속한 소그룹과 연계 또는 연합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개인의 활동은 보통 그 효과 측면에서 제한을 받기 때문에 사회 안의 특별한 필요들에 관심을 갖는 소그룹을 형성해서 참여하고, 적절한 활동을 조직하도록 장려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활동은 전체로서의 교회가 할 수 없는 일들이며 소그룹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다.

4) 지역공동체 운동을 통한 교회의 시민사회 참여

교회가 시민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은 지역공동체 운동을 전개하는 것이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시민적 연대와 관련된 의미 있는 운동들이 전개되고 있다. 그것은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지역의 대안공동체 운동과 주민자치운동들이다. 이런 운동은 그 속성상 시장예의 편입을 거부하는 특징이 있다. 또한 일상 속에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생활민주주의 운동으로서 그 역량은 장기적으로 축적되어 사회 변화를 주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

39) Robert Wuthnow, *윗글*(1996), 35.

40) 우리나라의 두 갈래 윤리 지향성으로 '가족주의'와 '경제주의'를 지적하고 있는 글로, 박영신, "두 갈래의 윤리 지향성, 그 울을 넘어," 한국사회이론학회(역음), 『윤리와 우리 사회』(서울: 현상과인식, 1998)을 볼 것.

다. 그리고 주민자치 운동은 가장 소중한 시민교육의 장소로서 현단계 사회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무임승차 심리를 극복함으로써 실질적인 민주주의와 정의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도구이다.⁴¹⁾ 특히 지역공동체의 주민자치운동은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 이주노동자, 교육, 먹거리, 교통, 환경 등 일상의 구석구석에서 주민의 직접 참여에 의한 자치를 추구하기 때문에 풀뿌리에서부터 사회 모든 영역에 민주주의를 구현하고자 하므로 공동선과도 직결된다.

따라서 교회가 이러한 지역공동체 운동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공동선 기여에 동참하는 좋은 방법이다. 교회 역시 교회가 터하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기업, 주민 등과 더불어 지역사회의 주요한 구성원이다. 교회는 그 지역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을 가진 개인들로 이루어진 것이며, 이 사람들을 위하여 세워진 기관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 지역사회의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교회 실존의 근거가 바로 지역사회인 것이다. 따라서 교회와 지역사회를 분리해서 생각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교회는 지역사회 안에서 일어나는 사회문제를 진지하게 다루고 그것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지역사회 활동을 효과 있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 구성원들의 지역사회활동에 대한 인식과 참여의향을 조사하여 지역사회활동을 전담할 수 있는 전략팀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교회 소그룹을 TF팀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교회 전체가 지역 사회 활동을 하기는 어려우나 각종 소그룹들이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게 되면 보다 더 자발성이 있고,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하게 되어 훨씬 더 많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이 소그룹 TF팀을 중심으로 지역사회를 조사하고 직접 실천 주제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이 권장된다. 그리고 교회 재정의 일정 부분(대략 10% 정도)을 지역사회 활동비로 정하고 소그룹을 지원대상자와 연결시켜 이들의 필요를 도울 수 있는 책임봉사제를 실시하는 것도 중요한 원칙이 될 것이다.

교회가 시민사회 참여를 통해서 공동선에 기여한다고 할 때, 최근 시민사회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마을 만들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전에는 주로 지역사회 개발운동으로 지역사회 주민들의 자주적인 참여와 주도적 노력으로 지역의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조건의 향상을 추구해왔다. '참여'를 통해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방편으로 공동체주의 운동 활성화가 필요해지면서,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참여'와 다양한 기관과의 '연대'를 강조하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단순히 경제 발전이나 개발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지역공동체 형성(community building)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개인주의 사회가 경쟁을 앞세운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이 원리가 지배한다면, 공동체 운동은 배려와 관심으로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추구한다. 마을 만들기는 바로 이러한 취지에서 지역사회를 재구조화하기 위한 시도로 이해된다.

마을 만들기 운동은 일종의 주민자치운동으로 여기서 '마을'이란 시민 전체가 공유하는 책임을 자각할 수 있고 공동으로 이용하며 활용할 수 있는 장을 총칭한다. 그리고 '마을 만들기'란 그 공동의 장을 시민이 공동으로 만들어내는 작업을 말한다. 이러한 마을 만들기는 '눈에 보이는 마을 만들기'와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을 만들기'의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눈에 보이는 마을'이란 말 그대로 물질로 구성되어 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 마을을 뜻하는 것이며,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을'이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활동으로 형성되는 마을을 뜻하는 것이다. 따라서 '마을 만들기'는 '사람 만들기'를 포함하는데, 곧 시민의식을 가지고 참여하는 사람이

41) 서유석. "'연대' 개념의 역사적 맥락과 현대적 의미". 『시대와철학』. 21권 3호(2010), 474-477.

되도록 의식을 개혁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다.⁴²⁾

지역사회 안에서 기독교인들이 비기독교인들과 함께 시민적 연대를 하고 마을 만들기를 통한 대안 공동체 운동에 참여한다면 우리 생활 속에서부터 정의를 실천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한국교회는 개교회 내부 결속력은 강하지만, 다른 교회와의 협력이나 지역사회에서의 연계 활동은 부족하므로 이에 대한 노력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교회가 지니고 있는 물질과 제도 자원이 지역사회를 위해 효과 있게 활용될 뿐만 아니라 교회 구성원들 역시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그리고 뜻을 같이 하는 다른 교회나 시민사회 단체들과 협력해야 한다.

5. 나가는 말

공동선의 문제는 매우 오래된 주제이다. 공동선에 대한 개념이나 선한 사회의 개념에 대한 논의도 다양하게 전개되어 왔다. 그러나 공동선의 개념을 확립하는 것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그것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하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불의하고 부정한 일들이 빈발하는 것이 선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선함이 현실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과정과 절차의 정직함과 공공성을 지키는 것이 오히려 손해를 본다는 생각이 사람들을 지배하면 그만큼 선한 사회를 이루기는 더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공동선을 이루는 데에서 시민 연대가 중요하다. 다양한 이해관계와 가치가 충돌하고 있는 공론의 장인 시민사회 영역에서 자기 중심적인 개인들을 연대하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개인들을 연대하게 하는 힘은 규범이다. 개인들 안에 내재하는 이기심을 억제하고 시민 도덕심으로 결속하도록 해야 한다. 도덕이 무너지게 되면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과 상관없이 정글의 법칙이 작동하는 비인간적인 사회가 되어버릴 것이다. 그러나 도덕이 살아있는 사회에서는 소수에 대한 배려와 약자 보호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도덕적인 힘의 원천이 되는 것이 바로 종교이다. 종교는 인간에게 필요한 기본 규범 뿐만 아니라 그 사회가 존속하고 발전하는 데 필요한 도덕과 정의의 원천이 되어 왔다. 대표적으로 성경은 십계명을 비롯한 많은 도덕 규범들을 제시하고 있으며, 산상수훈은 이 세상의 가치와는 전혀 다른 가치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사회가 변하고 삶의 기준이 되는 규범이 흔들려서 가치 판단이 어려울수록 사람들은 더욱 종교에 의지하게 된다. 정의롭지 못한 현실과 불확실한 미래에 대하여 종교가 기준점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특히 교회 소그룹을 기독교 시민 조직으로 활용하여 지역공동체 운동에 적극 참여한다면 시민사회 안에서 사회적 연대를 강화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공동선을 향해 나아가는 데 교회가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시민사회에서 공동선을 위한 교회의 역할은 종교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중요한 방법이기도 하다. 이 글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교회는 시민사회에서 공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많은 자원들을 가지고 있다. 또한 현대 사회에서 종교에 대하여 기대하는 것은 사회에서 무시되고 있는 도덕의 차원을 다시 공공 영역으로 들여오으로써 사회구성원들이 개인 및 집단 이기주의로부터 벗어나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갖도록 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다. 교회가 이러한 시민사회의 힘에 기여할 수 있다면 사회로부터 외면 받는 한국교회가 공공 종교로서의 역할을 다하게 될 것이다.

42)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정재영, 「함께 살아나는 마을과 교회」(서울: SFC, 2018)를 볼 것.